



## 삼위일체 하느님과 자연세계 (1)

생태신학에서 ‘관계’라는 주제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학과 연관되어 자주 다뤄집니다. 자연세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의 각 위격도 긴밀한 관계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말미에 〈삼위일체와 피조물들의 상호 관계〉(제6장 VII)에 대해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위격들은 실체적 관계이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세상은 하나의 관계망입니다”(240항).

자연세계 안에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물들 간의 관계입니다. 생물들은 공생 관계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득을 얻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전체 생태계는, 이러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생물들의 수가 조절됨으로써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생물과 주변 환경 간의 관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태양빛에서 양분을 얻어 생존합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새는 계절에 따라 먹이를 얻고 번식하기에 더 적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생물들 간의 관계, 생물과 주변 환경 간의 관계에 더해, 생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끼리의 관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손을 예로 들면, 손이 존재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팔과 심장, 뇌 같은 다른 신체기관들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팔에 붙어있고 혈관을 통해 심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피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경을 통해 뇌와 연결됨으로써 손에 가해지는 자극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뇌에서 명령이 전해져 생각에 따라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우주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특히 우리 인간의 몸은 약 50~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수소는 우주가 처음 팽창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소입니다. 산소와, 그 외 인체를 구성하는 탄소와 질소 같은 원소들도 우주에서 일어난 핵융합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우주에서 기원했다는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세계 안에는 많은 관계들이 내재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관계성이 생명체가 존재하고 전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계성 없이는 자연세계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곶벚나무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